

1 사진제공·청와대

2019
부산 빛낸 시민행복 10대 뉴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 개최


2 사진제공·부산일보

민선 7기 시정 성과·주요 이슈 대상
시민·언론인 등 4천487명 설문조사 참여

부산시민들은 2019년 부산을 빛낸 최고 뉴스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꼽았다. 부산광역시는 2019년 부산을 대표하는 '시민행복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시민행복 10대 뉴스'는 민선 7기 시정 성과와 주요 이슈 중 17개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시민·언론인·공무원 등 4천487명이 온·오프라인 설문 조사에 참여해 선정했다. 시민이 공감하는 뉴스 선정을 위해 시민 70%, 언론인 10%, 공무원 20%의 배점 비율을 적용했다.

설문 조사 결과 1위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 개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2014년에 이어 2회 연속 성공 개최를 통해 부산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는 평가다. 2위는 '부산이 걷는다, 사람 중심 보행도시 조성', 3위는 '전국 최초 난임지원 바우처 사업 추진'이 차지했다. 이 외에도 △안전속도 5030 시행 △도시철도 1·2호선 급행열차 건설계획 발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국가사업 확정 및 본격 유치 활동 돌입 △구포가축시장 폐쇄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착공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국내 최대 전기차 핵심부품 제조시설 코렌스 투자유치 성공 등이 각각 10대 뉴스에 이름을 올렸다. 부산시는 10대 뉴스에는 들지 못했지만 △동남권 관문공항 재검증 국무총리실 이관 전격 합의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 △소확행 사업 △메가스포츠 이벤트 성공 개최 등도 민선 7기 부산을 빛낸 의미 있는 사업으로 꼽았다.

1 한·아세안 허브 도시 부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 개최

지난해 11월 25~26일 개최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 개최'가 2019년 부산을 빛낸 최고의 뉴스로 뽑혔다. 2014년에 이어 2회 연속 특별정상회의 성공 개최로 부산시민의 자부심은 물론 부산의 글로벌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부산시는 국제 컨벤션 도시 역량과 함께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제고하는 등 그 어느 해 보다 글로벌 도시외교를 통해 부산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각료들에게 부산 곳곳 산업현장들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부산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부산의 투자가치가 주목받고 연일 아세안 현지 언론들이 부산을 주목했다. 실질적으로 정상회의 기간 동안 오거돈 부산시장은 아세안 각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통해 아세안과의 경제·문화교류 기반을 확보하고 투자유치 등 다방면의 협력도 이끌어냈다. 7만 명의 시민이 찾은 '한·아세안 푸드 스트리트'와 에어쇼 등 부대행사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2 걷기 좋은 부산 만들기 올인!
사람 중심 보행도시 조성

내 집 마당처럼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사람 중심 보행도시 조성'이 2위에 뽑혔다. 부산 전역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걷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것에 시민들은 높게 평가했다. 부산시의 '보행혁신 종합계획'은 민선 7기 시정의 최우선 가치인 '사람 중심'을 기본으로 한다. 막힌 길을 연결해 보행 연속성을 확보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며 생활 속 걷기를 실현한다. 특히 부산시는 지난해 '사람 중심, 보행도시 부산 원년'으로 선포하고 시민 중심의 보행혁신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전략으로는 △막힌 길을 연결해 보행연속성을 확보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며 생활 속 걷기를 실현한다. 또 △매력 있는 보행길을 만들고 △부산발 보행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것. 아시아 최대 걷기 축제인 '2019 아시아걷기총회 부산'도 개최했다. 광안대교도 임시로 개방해 좋은 호응을 얻었다. 부산시는 2022년까지 1조837억 원을 들여 부산을 세계가 주목하는 보행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